

ISSN: 2800-051X

Hankook **Research**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(제205-1호)

여론속의 여輿론論

2022 부동산인식조사:
부동산 투자 및 주택 보유 인식

2022. 11. 9

담당자 이동한 차장
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-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.
-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.
-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.
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,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.
- 정기지표-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.
- 정기지표는 국가, 사회,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.
-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.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,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.
-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.

운영책임

이동한 차장
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연구진

정한울 전문위원

전화 | 02-3014-1057
e-mail | hw.jeong@hrc.co.kr

이소연 연구원

전화 | 02-3014-1062
e-mail | lee.sy@hrc.co.kr

일러두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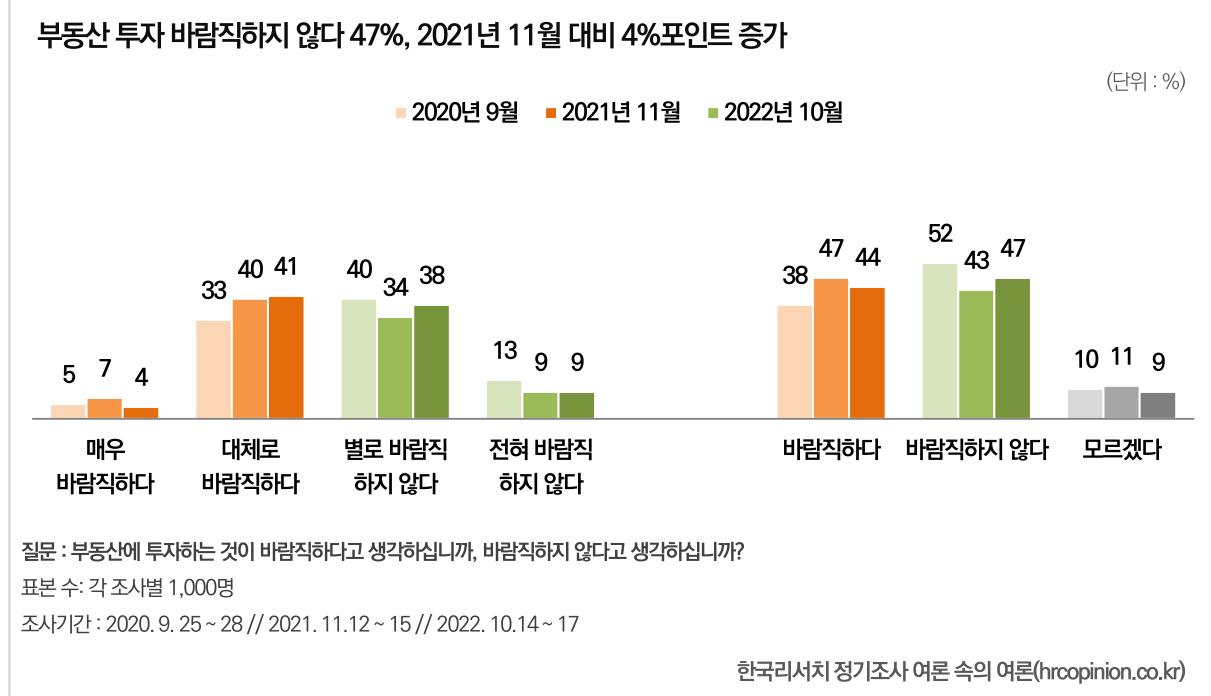
-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%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-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
1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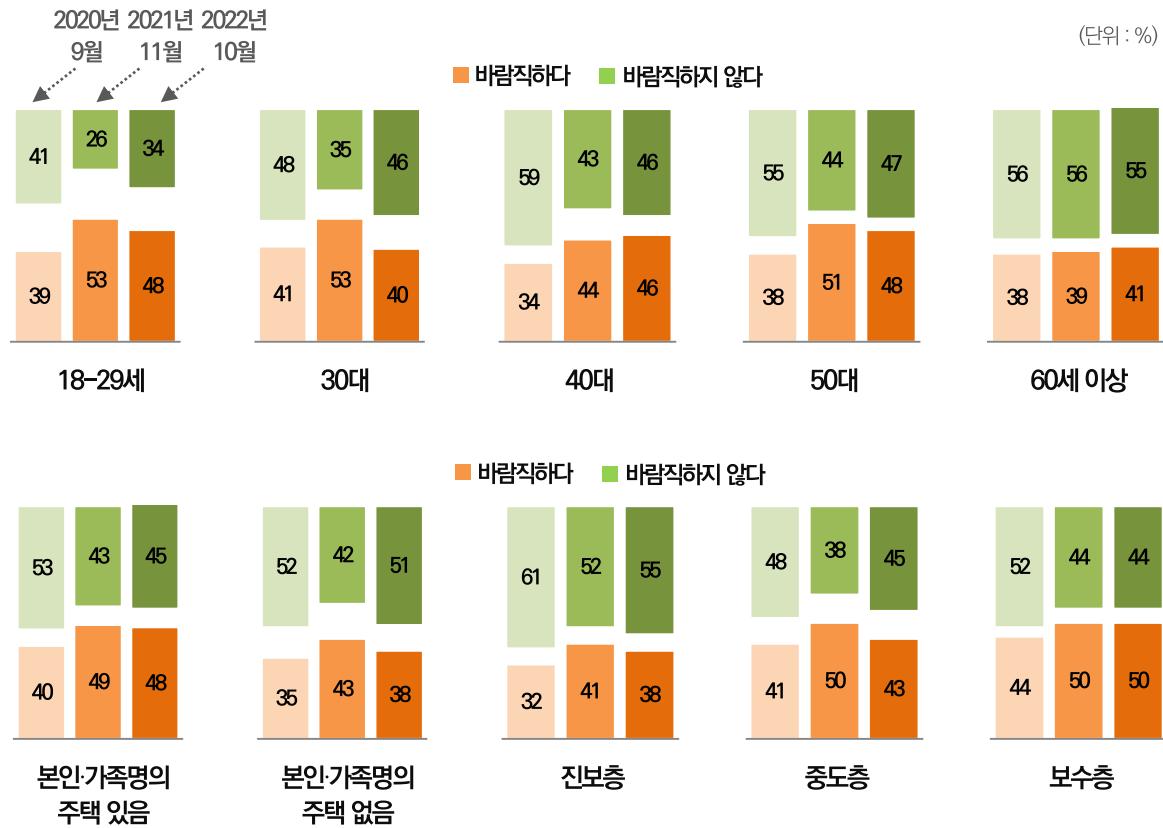
부동산 투자 바람직하지 않다 47%, 2021년 11월 대비 4%포인트 증가 연령대 낮을수록, 진보층일수록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 높아

이번 조사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혹은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4%로, [지난해 11월 조사](#) 대비 3%포인트 하락했다. 반면 별로 혹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47%로 4%포인트 상승했다. 지난해에는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했으나,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로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.

18~29세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응답(48%)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(34%)보다 우세한 반면, 60세 이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(55%)이 바람직하다는 응답(41%)보다 우세했다. 30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지난해 대비 11%포인트 상승했다.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51%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해, 바람직하다는 응답(38%)을 앞섰다. 진보층 또한 55%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해, 바람직하다는 응답(38%)을 앞섰다.



연령대 낮을수록, 진보층일수록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 높아
무주택자 중에서도 과반 이상이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해



질문 :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,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?

표본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조사기간 : 2020. 9. 25 ~ 28 // 2021. 11. 12 ~ 15 // 2022. 10. 14 ~ 17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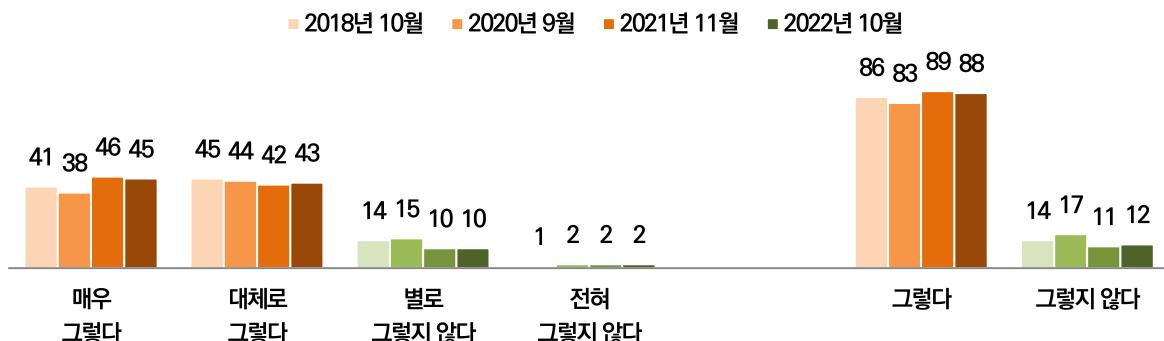
2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

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88%, 여전히 높아

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었다. 이번 조사에서, 전체 응답자의 88%가 ‘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’고 답했다. [지난 해 11월 조사](#)(89%)와 큰 차이 없는 결과이다.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올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, 국민들의 ‘내집 마련’ 욕구는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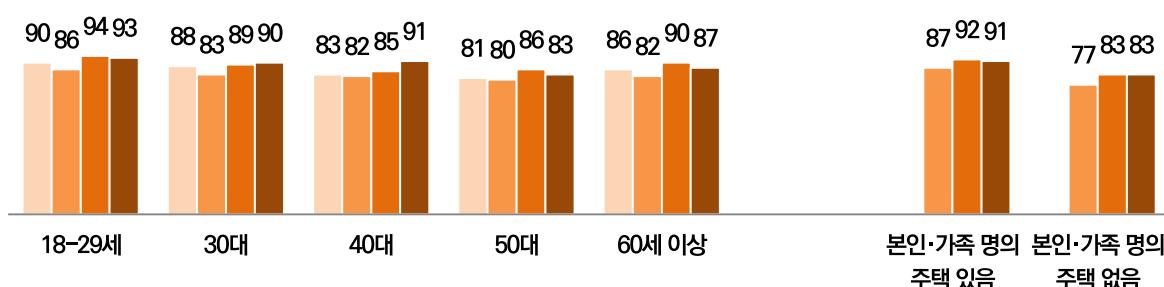
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88%, 지난 해 대비 큰 변동은 없어

(단위 : %)



‘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’ 응답

(단위 : %)



질문 :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비고: 2018년 조사에서는 본인이나 가족 명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묻지 않음

표본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조사기간 : 2018. 10.20 ~ 23 // 2020. 9. 25 ~ 28 // 2021. 11.12 ~ 15 // 2022. 10.14 ~ 17

보유세 인상되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 64% → 55%

금리인상으로 대출부담 커지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 53% → 38%

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86%로, 지난 해 11월 대비 큰 차이 없이 여전히 높았다. 유주택자(90%)와 무주택자(79%) 모두 주택가격 상승과 무관하게 내 집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.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는 응답 또한 78%로 높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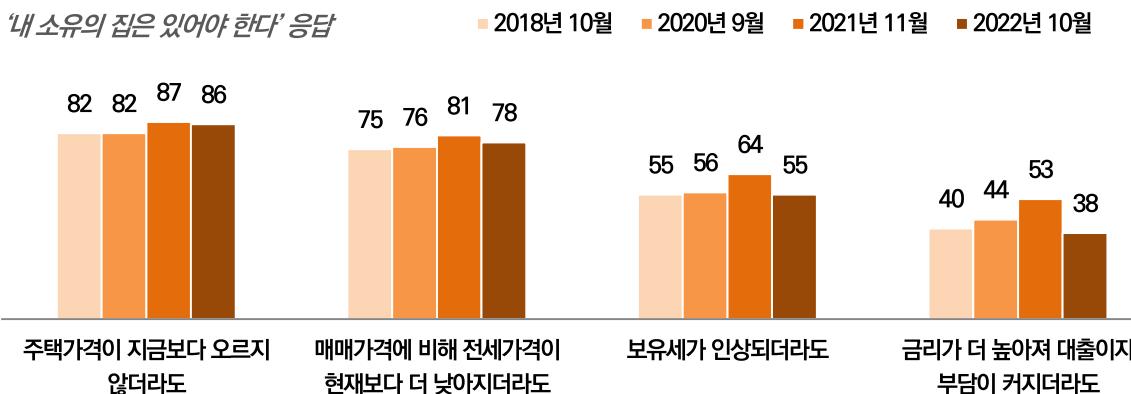
반면 세금과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의견의 변화가 감지되었다.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55%로, 지난 해 11월 대비 9%포인트 하락했다. 또한,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38%로, 15%포인트 하락했다. ‘보유세 인상’, ‘금리 부담’과 관계없이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은 지난해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였으나, 올해 하락하였다.

부동산 자산 가치의 변동은 주택 소유 의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. 반면,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해, 혹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는 주택 소유 의향이 감소하였다.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, 부동산세 및 대출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.

보유세 인상되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 64% → 55%

금리인상으로 대출부담 커지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 53% → 38%

(단위 : %)



질문 : 주택에 대한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?

-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
-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
-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
-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

비고: 매우 그렇다 + 대체로 그렇다 응답의 합

표본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조사기간 : 2018. 10.20 ~ 23 // 2020. 9. 25 ~ 28 // 2021. 11.12 ~ 15 // 2022. 10.14 ~ 17

세금, 대출 부담이 내 집 소유 인식에도 영향 미쳐

(단위 : %)

‘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’ 응답	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					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				
	2018년 10월	2020년 9월	2021년 11월	2022년 10월	차이 (2022년 - 2021년)	2018년 10월	2020년 9월	2021년 11월	2022년 10월	차이 (2022년 - 2021년)
전체	82	82	87	86	-1%p	75	76	81	78	-3%p
연령										
18~29세	85	83	90	85	-5%p	70	73	83	70	-13%p
30대	85	84	86	87	+1%p	78	74	80	75	-5%p
40대	80	79	83	88	+5%p	75	76	78	84	+6%p
50대	79	81	85	83	-2%p	72	74	78	73	-5%p
60세 이상	83	84	91	87	-4%p	79	79	86	83	-3%p
주택 보유 여부										
보유함	-	88	91	90	-1%p	-	80	85	84	-1%p
보유하지 않음	-	75	81	79	-2%p	-	70	75	67	-8%p
주택관련 비용 매월 지출										
하고 있음	-	81	86	85	-1%p	-	74	81	77	-4%p
하지 않음	-	84	88	88	-	-	78	82	79	-3%p

‘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’ 응답	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					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				
	2018년 10월	2020년 9월	2021년 11월	2022년 10월	차이 (2022년 - 2021년)	2018년 10월	2020년 9월	2021년 11월	2022년 10월	차이 (2022년 - 2021년)
전체	55	56	64	55	-9%p	40	44	53	38	-15%p
연령										
18~29세	58	54	67	55	-12%p	41	43	55	35	-20%p
30대	56	55	62	52	-10%p	39	40	49	35	-14%p
40대	51	57	59	57	-2%p	38	38	53	32	-21%p
50대	57	55	60	51	-9%p	43	50	50	38	-12%p
60세 이상	55	56	68	59	-9%p	39	46	54	44	-10%p
주택 보유 여부										
보유함	-	60	67	59	-8%p	-	47	55	42	-13%p
보유하지 않음	-	49	58	48	-10%p	-	40	49	29	-20%p
주택관련 비용 매월 지출										
하고 있음	-	54	62	53	-9%p	-	41	52	37	-15%p
하지 않음	-	58	65	57	-8%p	-	47	53	38	-15%p

질문 : 주택에 대한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?

-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
-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
-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
-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

비고: 매우 그렇다 + 대체로 그렇다 응답의 합. 2018년 조사에서는 본인이나 가족 명의 주택 소유 여부, 주택관련 비용 지출 여부는 묻지 않음

표본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조사기간: 2018. 10.20 ~ 23 // 2020. 9. 25 ~ 28 // 2021. 11.12 ~ 15 // 2022. 10.14 ~ 17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3 주택 구입·매도 시기

10년 내 주택 구입 계획 있다 40%, 현재 계획 없다 53%

10년 내 주택 매도 계획 있다 39%, 현재 계획 없다 56%

전체 응답자 가운데 40%가 10년 내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(1년 내 2%, 1~5년 내 21%, 5~10년 내 17%). 이는 [지난 해 11월 조사 결과](#)(38%)와 큰 차이는 없다.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53%로, 역시 지난 해 11월 조사 결과(54%)와 비슷했다. 30대와 40대, 그리고 현재 주택 미보유자 중 절반 이상이 앞으로 10년 내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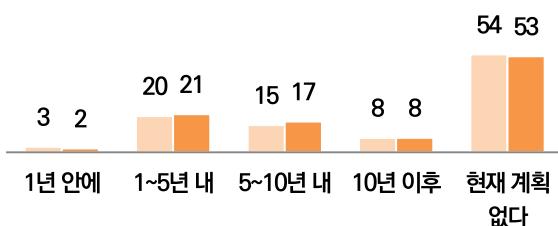
본인 혹은 가족이 소유한 집이 있는 응답자 중 39%가 10년 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(1년 내 3%, 1~5년 내 22%, 5~10년 내 14%). 지난 해 11월 조사 결과(37%) 대비 2%포인트 상승한 것으로, 역시 큰 변화는 없었다.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56%로, 지난 해 11월 대비 3%포인트 떨어졌다.

10년 내 주택 구입 계획 있다 40%

현재 주택 구입 계획 없다 53%

(단위 : %)

■ 2021년 11월 ■ 2022년 10월



질문 :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십니까? 있다면 언제 구입할 예정이십니까?

표본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조사기간 : 2021. 11.12 ~ 15 // 2022. 10.14 ~ 17

10년 내 주택 매도 계획 있다 39%

현재 주택 매도 계획 없다 56%

(단위 : %)

■ 2021년 11월 ■ 2022년 10월



질문 :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 계획이 있으십니까? 있다면 언제 팔 예정이십니까?

표본 수: 본인 혹은 가족 명의 주택 소유자(2021년 11월 617명, 2022년 10월 635명)

조사기간 : 2021. 11.12 ~ 15 // 2022. 10.14 ~ 17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3·40대, 주택 미보유자의 절반은 10년 내 주택 구매 계획 있어

(단위 : %)

	사례 수 (명)	주택 구입 계획						
		1년 안에	1~5년 내	5~10년 내	10년 이내	10년 이후	현재는 계획 없다	계
전체	(1000)	2	21	17	40	8	53	100
연령								
18~29세	(168)	2	10	19	31	24	45	100
30대	(151)	1	32	22	54	10	36	100
40대	(184)	3	30	21	54	5	41	100
50대	(195)	2	19	17	38	4	58	100
60세 이상	(302)	1	19	10	29	1	70	100
주택 보유 여부								
보유함	(635)	2	19	13	33	6	61	100
보유하지 않음	(365)	2	25	23	50	12	38	100
거주지역 집값 인식								
비싸다	(605)	2	26	18	46	8	47	100
적당하다	(230)	1	13	14	28	8	63	100
싸다	(165)	1	17	14	32	7	61	100

질문 :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십니까? 있다면 언제 구입할 예정이십니까?

표본 수 : 1,000명

조사기간 : 2022. 10.14 ~ 17

주택관련 비용 지출 부담된다고 답한 응답자의 46%가 10년 내 보유 주택 매도 계획 있어

(단위 : %)

	사례 수 (명)	보유 주택 매도 계획						
		1년 안에	1~5년 내	5~10년 내	10년 이내	10년 이후	현재는 계획 없다	계
전체	(635)	3	22	14	39	5	56	100
연령								
18~29세	(94)	0	5	6	11	6	83	100
30대	(82)	1	23	15	39	7	53	100
40대	(108)	3	22	20	45	3	51	100
50대	(131)	1	24	17	43	5	52	100
60세 이상	(220)	5	27	13	44	4	51	100
주택관련 비용 매월 지출								
하고 있음 - 부담됨	(244)	3	25	18	46	6	47	100
하고 있음 - 부담 안 됨, 모름	(60)	1	17	5	24	9	67	100
하지 않음	(331)	2	20	13	36	3	61	100
거주지역 집값 인식								
비싸다	(330)	2	25	13	39	4	57	100
적당하다	(166)	5	14	13	31	8	61	100
싸다	(140)	2	23	20	45	3	51	100

질문 :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 계획이 있으십니까? 있다면 언제 팔 예정이십니까?

표본 수 : 본인 혹은 가족 명의 주택 소유자 635명

조사기간 : 2022. 10.14 ~ 17

조사개요

구분	내용
모집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
표집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(22년 9월 기준 약 79만명)
표집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할당추출
표본크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,000명
표본오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,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1\%$
조사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웹조사(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)
가중치 부여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지역별, 성별, 연령별 가중치 부여(셀가중) (2022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
응답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조사요청 7,251명, 조사참여 1,325명, 조사완료 1,000명 (요청대비 13.8%, 참여대비 75.5%)
조사일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2022년 10월 14일 ~ 10월 17일
조사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(주)한국리서치(대표이사 노익상)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여론속의
여輿론論

Hankook Research

